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5.13. ~ 5.19.)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민 22 - 28	시 62 - 72
	개인	사 11 - 20	약 5 - 벧후 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4) - 오직 하나님께 영광(1)		
	<p style="text-align: center;">롬 11:36</p> <p style="text-align: center;">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p>		



5월 13일(월)

민22

시62,63

사11,12

약5

야고보서 5장 / 부와 고난

개요

1-6 부에 대하여

7-20 고난에 대하여

부한 자들은 종말에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1절). 그들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축적하며(2,3,5절), 일하는 자들에게 샅을 주지 아니하며(4절), 불의를 행하였습니다(6절). 한편 성도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를 견디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7-9절). 선지자들의 인내를 기억하며, 그들의 결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10,11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며(12절), 고난 당한 자와 병든 자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13-18절). 끝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일만큼 아름다운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19,20절).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새겨볼 말씀입니다. 성도는 부자들의 욕심과 불의에 대비됩니다. 성도는 종말이 이르도록 인내하며, 정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버려야 할 모습과 취해야 할 모습이 잘 제시된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한 성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욕과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 살아있는 신앙**개요**

1-12 살아있는 소망

13-25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1,2절).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3-5절). 여러 가지 시험조차 영혼의 구원을 막을 수 없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6-9절). 이 구원 역사는 하늘에서도 주목하는 일입니다(10-12절).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각진 자마다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서 살고(13-21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22-25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기준과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과 사랑은 늘 더 나아갈 여지가 있는 끝 없이 펼쳐진 모험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주시옵소서.

5월 15일(수)

민24

시66,67

사14

벧전2

베드로전서 2장 / 하나님 백성의 경건

개요

1-10 하나님의 백성

11-25 세상에서의 경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1-3절). 말씀은 성도를 자라나게 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데,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4-8절). 성도들은 긍휼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9,10절).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11,12절). 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 위에 있는 자와 주인들을 대합니다(13-20절). 고난은 성도의 부르심이며,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따라오게 하신 길입니다(21-25절).

성도는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사회 속에 있을 때에는 순응하는 사람들로 삽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 속에 있는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분을 좇아 이 땅의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앞서 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행실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 살아있는 경건**개요**

- 1-7 부부 관계에서의 경건
- 8-12 교회에서의 경건
- 13-22 고난과 경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1-6절). 그 목적은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과 자신의 거룩한 아름다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7절).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경건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8-12절).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13-17절). 그리스도는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17-22절).

성도의 선한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우리 목적이며, 그 길을 따라가도록 먼저 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모델입니다. 선을 위해 당하는 억울함, 고통과 괴로움은 고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살아있는 소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경건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있는 경건한 삶을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5월 17일(금)

민26

시69

사16

벧전4

베드로전서 4장 / 종말 신앙

개요

1-11 종말 신앙

12-19 종말의 고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1-3절).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4-6절).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근신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7-11절). 불과 같은 시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12-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깁니다(15-19절).

시간은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을 바라보며 느슨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따르며 삽니다. 더 거룩하게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삽니다. 그 가운데 받는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으며 기뻐합니다. 이 모든 거룩과 사랑과 인내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삶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님,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며,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5월 18일(토)

민27

시70,71

사17,18

벧전5

베드로전서 5장 / 교회에게

개요

- 1-4 장로들에게
- 5-6 젊은 자들에게
- 7-11 하나님께로
- 12-14 끝 인사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은 장로들과 젊은 자로 구분되는 질서 안에서 주어집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영광에 참여할 자로 앞서 언급한 고난의 맥락과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1절). 그들은 맡겨진 하나님의 양 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처야 합니다(2-4절). 젊은 자들은 그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지내야 합니다(5,6절). 마지막으로 흠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서 만나는 염려와 고난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8-11절). 성도의 삶은 그 은혜에 굳게 선 삶입니다(12절).

주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또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시작도, 종결도, 가는 길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진리**개요**

1-11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12-21 기억해야 할 진리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앎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1,2절).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3,4절). 성도는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5-11절). 이를 위해 베드로후서는 다시 한 번 그 진리를 서술합니다(12-15절).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도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16-21절). 그 내용인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16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앎은 살아있는 지식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서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작고 강한 교회(5)

Part 1. 작은 것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Part 2.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다

Part 3. 작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다

Part 4. 작고 위대한 교회가 되다

*칼 베이터스의 '작고 강한 교회'를 토대로 다시 쓴 글입니다.

먼저 친절한 교회가 되라

친절한 교회를 위한 기프트(G.I.F.T.) 플랜

인사(Greet)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라

낮선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인사하고, 얼마 동안 교회에서 얼굴을 보았지만 아직 인사를 나누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마음을 열고 환영하라.

소개(Introduce) - 사람들을 서로에게 소개하라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소개하라. 공통점이 있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어주고, 목회자에게 소개하라.

사후 관리(Follow up) -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의 사후 관리에 힘쓰라

한두 주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을 찾아 다시 인사를 건네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의 그룹에 합류시켜라.

감사(Thank) -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라

교회마다 자원해서 시간과 노력을 바쳤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작은 교회를 위한 제자 양육과 멘토링을 생각하라

큰 교회의 경우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할 새로운 교인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매년 그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훈련 프로그램이 제자 육성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회에 이 방법은 이상적인 제자 양육 방법이 못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가장 오래된 배움의 방식은 모방입니다. 이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예수님과 바울을 비롯해 초대 교회 신자들의 제자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신학적 진리를 배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자 양육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라는 바울의 말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멘토링은 함께 살고 일하면서 배우는 도제식 교육입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에 영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멘토입니다. 멘토는 교사, 목회자, 부모, 친구 등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미 멘토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멘토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필요한 만큼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멘토링을 위해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작은 교회는 이미 멘토링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멘토링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멘토링은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 곧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기도 하는데,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일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함께 지어줘 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이들에게서도 배웁니다. 그러한 배움과 성장의 시간에는 매일 똑같이 느껴지는 일상과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사와 때로는 상한 감정과 의견 충돌 등도 포함됩니다.

니다. 작은 교회의 유익은 이를 피해 숨을 군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크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동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와 제자 양육과 교제와 사역과 복음 전도를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기울여 감당하고, 그 결과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라는 사명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더 잘하려면 교회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 의해 우리 각 사람이 자라나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크십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주님, 작고 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지체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복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내일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로 존재하며 주님의 제자된 교회되게 하옵소서.